

새 집을 기다리며,

뉴 힐(New Hill)의 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

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(성가정성당)에서 사목하시는 김충섭 신부님의 사제관 옆 차고의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는 이 공동체가 그토록 갈망하는 새로운 성당에 영광스럽게 모셔지기를 기다리시는 성모님 상이 있다.

이 공동체에 대하여, '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? 기적 같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'라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지청룡 사목회장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2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.

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는,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 맥나마라(Fr. Joe McNamara) 신부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목하고 계셨던 1980년대에, 매리 린치(Mary Lynch) 수녀님의 도움과 신부님의 지도 아래 지금은 도젤 센터(Doggett Center)가 된 아퀴나스 하우스(Aquinas House)에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봉헌하던 주일 미사에 수 명의 한국 유학생들과 연구원 그리고 방문객들이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.

이 작은 공동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의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다. 그날 밤 이들은 랄리 중심가에 있는 세이크리드 하트(Sacred Heart Cathedral) 성당 지하실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.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울 한 (Fr. Paul Han) 신부님이 자주 공동체를 방문하셨고, 그 날 신부님은 트라이앵글 지역의 한인 공동체와 웨이트빌의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목하려고 계획하였다. 비록 한 신부님은 도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가셨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카톨릭 학생 모임보다 훨씬 큰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은 계속되었다. 오래지 않아 한인 공동체는 존 월(Fr. John Wall) 신부님이 계셨던 캐리의 옛 성 마이클 성당에서 마침내 공동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. 그 작은 공동체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, 현재의 성 마이클 성당에서 150여 가구가 모여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성 마이클 성당에서 개최하는 15년 전통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(International Festival)에도 축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.

1990년대 초에는 샬롯에 계시는 한인 신부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셨고, 1994년부터는 안식년 중이신 김상진 신부님께서 1년 반 정도 랄리와 웨이트빌의 한인 공동체를 함께 사목하셨다. 1997년부터 랄리 교구청은 랄리와 웨이트빌 지역의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좀 더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사목할 수 있도록 한국인 신부님을 초청하여 오고 있다. 첫번째로 김성남 신부님께서 4년 반을 이 곳에 체류하셨고, 그 동안 뉴 힐에 있는 사제관을 구입하고 축성하였다. 두 한인 공동체는 2003년에 이르러 각 공동체에 한 분씩의 신부님이 필요할 만큼 성장하였고, 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(성가정성당)는 토요일 저녁 성 마이클 성당에서 봉헌하는 미사뿐만 아니라 수요일과, 금요일의 평일

미사와 주일미사를 사제관에서 봉헌하고 있다.

2007년에 부임한 서울교구의 김충섭 신부는 랄리 교구에서 환영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하며, 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 공동체가 단지 지역 주민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미국을 방문 중인 한인들이 이 공동체의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문화도 배우고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,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.

또한 근래에 공동체를 방문해 주신 주교님께 감사드리고, 올 봄 견진성사때 방문하시기로 한 약속을 기대한다는 지청룡 사목회장은 "우리는 그 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분의 모토인 '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진합시다'를 따라 우리도 그러한 정신으로 그 분과 함께 행진하기를 바랍니다. 그 분의 인도 아래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또한 다른 공동체들과 좀 더 많은 유대를 갖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."라고 한다.

트라이앵글 한인천주교회(성가정성당)은 이제 주임신부를 모시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. 이제 이 공동체의 다음 소망은 공동체 자신의 집, 즉 자신들의 교회를 건립하는 일이다. 교회 건립은 이 공동체 가족들이 자녀들을 주일날 주일학교에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김충섭 주임신부의 진실된 바람이다. 이 소망은 현실화 되어 추진 중이며 교구청은 이 공동체에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구입을 허가하였고 예상되는 건축비의 절반을 융자하여 주기로 하였다.

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